

# 미래에셋증권 AI Festival 우승 전략 보고서

문서 비판적 검토 · 우승 전략 · 3개 주제별 구체 서비스 제안

|       |                                                                             |
|-------|-----------------------------------------------------------------------------|
| 핵심 결론 | 1지망: Disclosure Sentinel Analyst / 2지망: Pension Twin / 3지망: Product Compass |
| 전략 방향 | 근거 우선 RAG + 결정론 Tool + HyperCLOVA X + 검증 레이어                                |
| 작성일   | 2026-07-01                                                                  |
| 원문    | C:WCC_project₩미래에셋 대회.md                                                    |

이 보고서는 원문 문서의 주장과 전략을 우승 가능성 관점에서 재검토한 실행형 요약본입니다. 공지·Q&A·제출 양식 등 추후 공개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C:WCC\_projectW미래에셋 대회.md 문서 기반 비판적 검토 및 전략 재구성

산출물 목적: 대회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실행 전략과 3개 주제별 구체 서비스 제안

검증 수준: 문서 기반 분석. 대회 공지·Q&A·제출 양식·데이터 제공 범위는 원문상 미공개 또는 추후 공지 예정으로 전제.

## 1. Executive Summary

원문 문서는 대회 일정, 주제 배정 방식, 역대 수상작 패턴, 공개 데이터 소스, AI THOR-Agent-Framework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다. 핵심 방향은 타당하다. 특히 주제 배정 알고리즘, 신뢰성 중심 Agent, HyperCLOVA X 중심 구현, RAG + Tool-calling 구조를 우승 변수로 본 관점은 설득력이 높다.

다만 우승 전략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부 평가 기준을 일부 추정해 의존하고 있고, 주제별 경쟁률·인기 순위·데이터 제공 범위도 확정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전략은 “확정 규정”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확인 가능한 신뢰성·도메인 적합성·완성도”에 맞춰 재구성해야 한다.

최종 권고는 다음과 같다.

1. 1지망 추천: 주제3 공시 Disclosure Analyst

DART API 성숙도, 근거 검증 가능성, 장문 문서 분석이라는 LLM 강점, 시각화 가능성이 모두 높다. 우승형 서비스는 **Disclosure Sentinel Analyst**.

2. 2지망 추천: 주제2 연금 Pension Advisor

세제·제도 RAG와 결정론적 계산 Tool을 결합하면 차별화가 크다. 우승형 서비스는 **Pension Twin & Tax Navigator**.

3. 3지망 추천: 주제1 금융상품 Finder

직관적이라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나, 단순 추천 챗봇을 넘어서 “의도 정규화 + 규제 안전 비교 + 근거 표기”로 설계하면 승산이 있다. 우승형 서비스는 **Product Compass Agent**.

## 2. 원문 문서 비판적 검토

### 2.1 강점

- 대회 운영 구조를 전략 변수로 해석했다. 주제 배정이 지망 순위와 접수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실제 팀 전략에 직접적이다.
- 역대 수상작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잘 포착했다. 개인화, 실시간 또는 최신 정보, 신뢰 가능한 근거, 시각화, 자동화는 금융 AI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세 주제 모두를 같은 Agent 아키텍처로 묶는 접근이 효율적이다. RAG + Tool-calling + 검증 레이어는 세 주제에 공통 적용 가능하다.
- AI THOR-Agent-Framework 활용 방향이 적절하다. 템플릿을 도메인 팩 방식으로 확장하면 배정 주제 변경에도 대응 가능하다.

### 2.2 약점과 리스크

- 평가 기준이 미공개인데도 일부 우선순위가 추정에 의존한다. 예컨대 HyperCLOVA X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거나, 실제 배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주제별 경쟁률 예측은 근거가 약하다. 주제1이 가장 인기 있고 주제3은 덜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 정보가 아니다.

- 데이터 접근성과 대회 제공 데이터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공개 API를 활용하는 전략은 좋지만, 주최 측이 별도 데이터셋·제한 조건을 제공하면 설계를 조정해야 한다.
- 금융 규제 리스크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추천"이라는 표현은 투자자문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표현·UI·면책·가드레일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 프로토타입 완성도 전략이 부족하다. 우승작은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심사위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모, 정량 평가, 실패 대응, 근거 로그가 필요하다.

## 2.3 보완 원칙

- 확정되지 않은 외부 조건에 베팅하지 말고, 검증 가능한 품질 요소에 집중한다.
- LLM이 수치·법령·공시 내용을 "생성"하지 않게 하고, Tool과 원문 근거를 우선한다.
- 발표 자료에는 기술 구조보다 먼저 사용자 문제, 업무 절감, 리스크 감소, 신뢰성 증거를 배치한다.
- 세부 규정 공개 후 48시간 내에 데이터·제출 양식·평가 기준에 맞춰 설계를 재정렬한다.

## 3. 우승 전략

### 3.1 핵심 포지셔닝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AI 챗봇"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금융 의사결정 보조 Agent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LLM 답변 자체가 아니라 다음 네 가지다.

1. 근거성: 모든 핵심 주장에 데이터 출처, 원문 링크, 계산 근거가 붙는가?
2. 정확성: 수치 계산과 법령 판단을 LLM이 아니라 결정론적 Tool이 처리하는가?
3. 사용자 가치: 대학생 수준의 데모가 아니라 실제 미래에셋 고객·PB·리서치 업무에 연결되는가?
4. 완성도: UI, 장애 대응, 평가셋, 로그, 발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가?

### 3.2 공통 아키텍처

- LLM 계층: HyperCLOVA X Provider를 AITHOR-Agent-Framework에 연결.
- Tool 계층: DART, data.go.kr, law.go.kr, 금융상품/연금 데이터 조회를 읽기 전용 ToolContract로 등록.
- RAG 계층: 공시 원문, 법령·세제 문서, 상품 설명서를 문서 유형별로 분리 인덱싱.
- 검증 계층: 답변 생성 후 claim 단위로 원문·수치·법령 대조. 불확실한 답변은 "확인 필요"로 강등.
- 가드레일 계층: 투자자문 오해 표현, 과도한 수익 보장 표현, 개인정보 노출, 출처 없는 단정 차단.
- UI 계층: 대시보드, 근거 패널, 비교표, 변화 탐지, 다운로드 가능한 리포트.

### 3.3 심사 대응 전략

- 5분 데모 구조: 문제 제기 → 실제 사용자 질의 → Agent 처리 과정 → 근거 검증 → 시각화 결과 → 비즈니스 임팩트.
- 정량 지표: 답변 citation coverage, 수치 검증 통과율, 검색 latency, golden set 정확도, hallucination fail rate.
- 차별화 문장: "우리는 답을 잘 쓰는 챗봇이 아니라, 근거를 확인하고 틀리면 멈추는 금융 Agent를 만들었다."

## 4. 주제별 우승 서비스 3종

## 4.1 주제1: Product Compass Agent

### 서비스 한 줄 정의

채권·ETF·펀드에 대한 모호한 투자 니즈를 정량 조건으로 변환하고, 상품별 비용·위험·기간·세제·유동성을 근거 기반 비교표로 제공하는 규제 안전형 금융상품 탐색 Agent.

### 핵심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가 “3년 정도 묶어둘 수 있고, 원금 변동은 너무 크지 않으면서 세금도 고려하고 싶다”고 입력하면 Agent가 투자 성향을 추가 질문으로 정리하고, 채권·ETF·펀드 후보를 비교한다. 단정 추천 대신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군”과 “확인해야 할 리스크”를 제시한다.

### 주요 기능

- 자연어 니즈를 만기, 위험도, 비용, 유동성, 세제, 자산군 조건으로 변환.
- 채권·ETF·펀드별 비교표 자동 생성.
- 수익률·보수·듀레이션·거래량·기초자산 등 핵심 지표 시각화.
-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 및 비교” 문구 자동 적용.
- 출처, 기준일, 데이터 갱신 주기, 라이선스 표시.

### 데이터와 Tool

- data.go.kr 금융위원회 API: 채권기본정보, 펀드상품기본정보, ETF/ETN 시세 관련 데이터.
- 보조 소스: 금융투자협회 펀드 정보, 상품 설명서, 공시 문서.
- Tool: `normalize_intent`, `search_bonds`, `search_etf_funds`, `rank_products`, `generate_comparison_table`, `compliance_phrase_guard`.

### 우승 포인트

주제1은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단순 검색이 아니라 의도 정규화와 규제 안전성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발표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용 추천”이 아니라 “고객과 PB 모두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도구”라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 MVP 데모

“안정적 현금흐름을 원하는 20대 사회초년생”, “달러 ETF와 국내 채권형 펀드를 비교하려는 투자자”, “3년 만기 자금 운용 후보를 찾는 사용자” 세 가지 케이스를 준비한다.

## 4.2 주제2: Pension Twin & Tax Navigator

### 서비스 한 줄 정의

사용자의 나이·소득·납입액·퇴직연금 유형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연금 수령, 상품 비교, 제도 근거를 함께 제공하는 연금 디지털 트윈 Agent.

## 핵심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가 나이, 총급여,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입력하면 Agent가 올해 추가 납입 가능액, 예상 세액공제, 수령 시 과세 유의점, 비교 가능한 연금 상품을 제시한다. 모든 세제 설명에는 법령 조문과 기준연도를 표시한다.

## 주요 기능

- 연금저축·IRP·DC/DB 제도 차이 설명.
- 세액공제 한도와 예상 환급 효과 계산.
- 연금 상품 수익률·수수료·위험등급 비교.
- 사용자 조건별 “올해 할 일” 체크리스트 생성.
- 법령·국세청 해석·상품 공시 근거 패널 제공.
-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및 마스킹.

## 데이터와 Tool

- data.go.kr 퇴직연금기본정보 API.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
-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석 자료.
- Tool: `calculate_tax_credit`, `retrieve_pension_products`, `law_rag_search`, `compare_fees_returns`, `privacy_masker`, `explain_with_citation`.

## 우승 포인트

주제2는 제도와 세제가 복잡해 진입장벽이 높다. 따라서 LLM이 세금을 추론하지 않고 계산 Tool이 산출한 값을 LLM이 설명만 하는 구조를 보여주면 신뢰성에서 큰 차별화가 가능하다.

## MVP 데모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이미 연금저축에 일부 납입한 사용자”, “IRP와 연금저축 중 추가 납입을 고민하는 사용자” 세 가지 케이스를 준비한다.

## 4.3 주제3: Disclosure Sentinel Analyst

### 서비스 한 줄 정의

DART 공시와 재무 데이터를 수집해 핵심 변화, 위험 신호, 전년 대비 차이, 원문 근거를 자동으로 제시하는 근거 우선 공시 분석 Agent.

### 핵심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가 특정 기업명을 입력하면 Agent가 최근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를 조회하고, 매출·이익·부채·현금흐름 변화와 사업 리스크 문구 변화를 분석한다. 모든 분석 문장 옆에는 DART 원문 링크와 수치 출처가 붙는다.

### 주요 기능

- 기업명 또는 종목코드 기반 공시 검색.

-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감사보고서 요약.
- 전년 대비 수치 변화 자동 탐지.
- 위험 문구, 계속기업 불확실성, 소송, 대규모 차입, 내부회계 이슈 플래깅.
- 정형 재무 API와 원문 XML RAG의 교차 검증.
- 투자자·PB·리서치 보조용 리포트 PDF 생성.

## 데이터와 Tool

- DART Open API: 공시검색, 공시 원문 XML, 단일회사 전체 재무제표, 주요 재무지표, XBRL.
- Tool: [dart\\_search\\_filings](#), [fetch\\_financial\\_statements](#), [extract\\_risk\\_sentences](#), [compare\\_periods](#), [verify\\_claim\\_against\\_source](#), [generate\\_evidence\\_report](#).

## 우승 포인트

세 주제 중 가장 “금융 Agent다운 신뢰성”을 보여주기 좋다. 원문 문서와 정형 재무 수치를 함께 검증할 수 있어 환각 방지 구조가 명확하고, 대시보드와 리포트 시각화도 강력하다. 최우선 우승 후보 주제로 추천한다.

## MVP 데모

“전년 대비 실적은 좋아졌지만 현금흐름이 악화된 기업”, “감사보고서에서 위험 문구가 새로 등장한 기업”, “최근 주요사항보고서가 잦은 기업” 세 가지 케이스를 준비한다.

## 5. 주제별 우승 가능성 비교

| 기준        | 주제1 Product Finder | 주제2 Pension Advisor | 주제3 Disclosure Analyst |
|-----------|--------------------|---------------------|------------------------|
| 데이터 성숙도   | 중상                 | 중                   | 상                      |
| 차별화 난이도   | 높음                 | 중                   | 중                      |
| 규제 리스크    | 중상                 | 중                   | 중                      |
| LLM 강점 발휘 | 중                  | 중상                  | 상                      |
| 시각화 가능성   | 상                  | 중상                  | 상                      |
| 우승 추천도    | 3순위                | 2순위                 | 1순위                    |

## 6. 실행 로드맵

### 접수 전후

- 접수 오픈 직후 신청해 원하는 주제 배정 확률을 높인다.
- 1지망 주제3, 2지망 주제2, 3지망 주제1을 기본안으로 둔다.
- 공지사향·Q&A·제출 양식·데이터 제공 조건을 매일 확인한다.

### 1주차

- HyperCLOVA X Provider를 AITHOR-Agent-Framework에 연결한다.

- 세 주제 공통 Agent shell, ToolContract, RAG ingestion, 로그 구조를 만든다.
- 배정 주제에 맞춰 도메인 팩을 선택한다.

## 2~3주차

- 공개 API와 RAG 문서 수집 파이프라인을 완성한다.
- Golden set 30~50개를 만들고, 답변 정확도·근거 포함률·수치 검증률을 측정한다.
- UI 대시보드와 PDF 리포트 생성을 붙인다.

## 4주차~제출

- 데모 시나리오 3개를 고정하고 실패 케이스까지 준비한다.
- 발표 스토리를 “문제 → Agent → 근거 → 검증 → 임팩트”로 압축한다.
- 규제·개인정보·데이터 라이선스 문구를 명확히 정리한다.

## 7. 최종 제언

우승을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었는가”보다 “왜 이 Agent를 믿을 수 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세 주제 모두에서 답변 품질의 핵심은 LLM의 말솜씨가 아니라 데이터 출처, 계산 Tool, 검증 레이어, 가드레일, 데모 완성도다.

가장 유리한 선택은 주제3 **Disclosure Sentinel Analyst**다. 데이터가 성숙하고, 근거 우선 분석을 구현하기 쉬우며, 심사위원에게 신뢰성과 기술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주제 배정 결과가 달라져도 같은 프레임워크로 주제2와 주제1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메인 팩 구조로 개발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다.